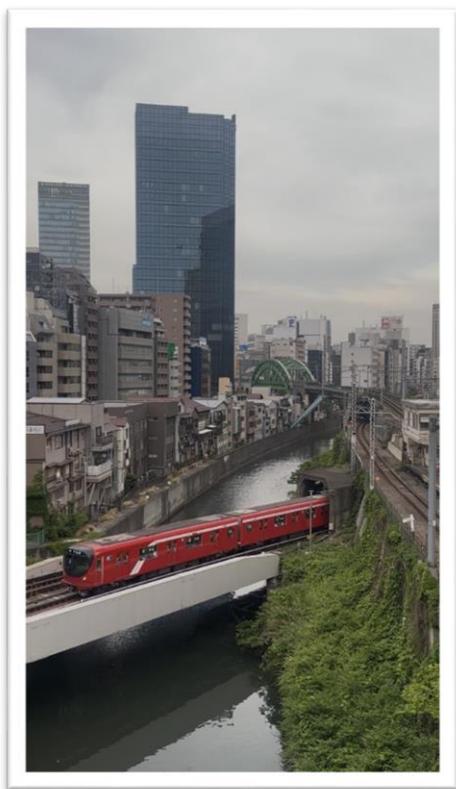


오차대에서의 반 년

경북대학교
최수연
학적번호 k2590002

일본에서의 반 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국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반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좋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오차노미즈 대학의 수업은 커리큘럼부터 매우 체계적이었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. 일본어 수업도 수준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었으며,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. 상급 한자와 일본사정연습 2 를 담당하신 카토 선생님, 중상급 문법을 담당하신 빈테리아 선생님, 일본어연습 2 를 담당하신 이지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



일본어 수업뿐만 아니라, 전공 과목 선생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오구치 선생님과 이가라시 선생님께서는 친절히 답해주셨습니다. 또한,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분야에서 일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에 키타무라 선생님의 정보처리연습 수업을 듣게 되어 데이터 분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유학생의 안위를 신경써주신 지도 교수 나가오 선생님까지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

학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소와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. 5월 초에 있는 골든위크를 활용하여 다녀왔던 관서 여행에서는 관동 지방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또한,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야마나시, 요코하마, 나가노 등 단순한 여행으로는 쉽게 가지 못하는 일본의 곳곳을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.

한국에서는 여학교를 다닌 적도, 본가에 나와 살아본 적도 없었기에 오차노미즈 대학에 와서 처음 경험해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.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
마지막으로 부족한 일본어 실력에도 좋은 친구가 되어준 하루나와 나나미,
그리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
전하고 싶습니다.

